

#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

### 포천로타리클럽 · 포천라이온스클럽 이웃돕기 誠金 전달식

포천로타리클럽(회장 황광익)과 포천라이온스클럽(회장 지현춘)은 매년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몽베르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해 430만4천원의 기금을 모아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5월30일 포천신문사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황광익 포천로타리클럽 회장과 지현춘 포천라이온스클럽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주)포천신문사 최호열 대표 이사에게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지현춘 포천라이온스클럽 회장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 성금이 전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포천신문사가 연중 운영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하는 것이라는 회원들의 생각에 따라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호열 포천신문사 대표이사는 “포천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로타리클럽과 라이온스 클럽 회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며 “포천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두 단체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성금 기탁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모금된 성금은 두 단체의 자선골프대회에서 360만원을



포천로타리클럽(회장 황광익)과 포천라이온스클럽(회장 지현춘)은 매년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모았고 몽베르컨트리클럽에서 좋은 취지라며 대회 후 저녁식대 70만4천원을 받지 않아 이 금액도 성

##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한 어머니가 학부모 모 회의에 참석하여 유치원 교사로 부터 “아드님한테 다동증(多動症)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채 3분도 견디지 못해요. 병원에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들이 물었다. “오늘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어?” 반 아이 40명 가운데 유독 자기 아들만 선생님의 눈 밖에 났기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 가장 행복한 선물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을 칭찬 하시더군요. 단 1분도 자리에 앉 아있질 못하던 애가 지금은 3분 동안이나 견뎌내고 말아야. 다른 애 엄마들도 모두 부러워하더군요.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제일 조용하다고.”

그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가 일 일이 먹여주지 않고도 밤 두 그 룯을 푹딱 해주었다.

중학교 학부모회의 때 “지금의 성적으로 아드님의 고등학교 입학 은 아무래도 벅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선생님께서 너한테 아주 많은 기대를 하시더군요.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다고 말이다.” 그 이듬해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3년 후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

서 아들을 학교 왔다가라는 전화가 왔다.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예감이 들었다.

얼마 후 아들이 명문대학이니 션이 붙은 서류봉투를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소리내어 울었다.

뒤늦게 간 어머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야야, 이 기쁜 날 왜 왜 울어?”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난 내가 머리 나쁜 애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기에...”

어머니는 지난 10년간 가슴에 묻어 두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하염 없는 눈물이 받쳐 든 합격통지서를 적시고 있었다.

미사 봉 말굽 센터 중에서  
(문의 011-342-5834)

# “세상을 밝히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야”

### 박홍진 회장, 독수리유격대 추념식에서 강조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회장 박홍진)는 6월6일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광장에서 관내 주민과 6.25 참전유공자, 8사단 장병,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16위의 추념식을 올렸다.

박홍진 회장은 이날 추념사에서 “살아 있는 우리가 독수리유격대의 숭고했던 애국정신의 불씨를 되살려서, 세상을 밝히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당부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독수리유격대의 활동과 정신에서 국가와 국민의 책임과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고 독수리유격대원의 국가정신을 존엄하게 받들며 정치인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주인된 마음으로 나라를 지켰던 독수리유격대의 애국정신처럼 우리도 주인이라는 의식과 애국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풀고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육군 8사단장 김광영 소장은 “독수리유격대의 부활했던 호국정신을 본받아 국가방위의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사단 독수리연대장 정강호 대령은 “선배 독수리유격대원님의 참전 활동과 애국정신을 교훈으로 삼으며, 빈틈없도록 국가방위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 최명홍 총무는 “추념식의 목적과 의미는 독수리유격대의 활동과 정신을 내

세우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숭고했던 애국정신과 국가 기여를 후대들이 이해하게 하고,



독수리유격대 기념사업회는 6월6일 독수리유격대 전적비 광장에서 관내 주민과 6.25 참전유공자, 8사단 장병,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독수리유격대 전몰대원 16위의 추념식을 올렸다.

씨앗으로서 심어주는데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수리유격대는 6.25 당시 포천 출신의 반공청년 63명이 조직한 민간유격대로서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참전 영역을 전국적으로 넓혔으며, 1.4후퇴 이후 일월산, 팔공산까지 침투한 북한 유격부대(10사단) 토벌작전에 참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야”

### 고은창사 18주년 기념식에서 밝혀

고은그룹(회장 최호열) 창립18주년 기념식이 6월6일 오전10시 포천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그동안 수고했던 임직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기념사,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고은그룹 최호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8년 동안 회사가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임직원 상승, 쇄고기업상 파동 등 국내외 경제 악화로 지역경제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때에 고은그룹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7년이상 장기근속 임직원에게 대한 감사패 전달은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안병호 대표이사는 부상으로 하와이 여행권을, 고은중

합전기(주) 최규희 과장, (주)포천신문사 정병강 업무국장은 부상으로 동남아시아 여행권이 주어졌다.

또 3년 근속 임직원은 고은종합전기(주) 안주선, 양종석과장과 (주)포천신문사의 하승완 취재국장 이 근속패를 수상하고 부상으로 반지와 1박2일 휴가권을 받기도 했다.

이러 가진 체육대회는 고은그룹 임직원의 단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본의 아니게 회사를 떠나야했던 직원들도 이날 참석해 고은그룹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한편, 고은그룹은 (주)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고은종합전기(주), (주)포천신문사, 고은기업(주) 등 4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기사개요

### 비료값 걱정 없는 농민

요즘 기름값 폭등 등 원자재 값 상승으로 비료값 등 농자재 값 역시 폭등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비료값만은 걱정 없이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 소개한다.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깊은 마을의 김주봉씨는 자신이 짓는 논논사 8,000평을 축산분뇨의 발효액비로 농사지으며, 액비는 썩자로 쓰고 고품질의 쌀을 마지막 80kg을 더 생산하여 쌀값을 더 받는 신명나는 농사를 짓고 있다.

하지만 많은 농민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으니 현재 소수의

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막대하고 비료의 원료를 들여오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걸 감안하면 정부 농민 축산농 모두를 바라보지거리를 하고 있으니 옆에서 보는 나로서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소수의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축산농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괜히 나서서 참피 당할까 두려워서인지 눈만 껌벅거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포천시의 농민을 위해서 포천신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

포천시농민회 홍보실장 박춘형

### 군내면 제3차 방위협의회 개최 토지보상 전문가 초청 강의 청취

군내면 제3차 방위협의회의(의장 김진태, 부의장 이두원)가 회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29일 군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관내 소재한 기업체 직원 중 우수모범사원에 대한 표창과 시장보결선거 주요일정, 아름다운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동참 협조, 민방위 교육 실시 등에 대한 시정 홍보 순으로 진행됐다.

또 법률전문가 법무법인 울진의 오정국 변호사를 초빙해 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하승완 기자 forme64@paran.com



군내면 제3차 방위협의회의가 회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29일 군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

#### 운천 상인회, ‘차 없는 희망의 거리’ 축제

운천 상인회(회장 성낙원)는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부대 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희망을 꿈꾸는 거리문화화 조성하기 위하여 5월31일 오후3시부터 8시30분까지 ‘차 없는 희망의 거리’ 축제를 개최했다.

운천 상인회가 주관하고 포천 의제21, 포천예총,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가수연합회, 포천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성낙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여러분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협조해준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유도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3시부터 4시30분까지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토핑비결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 4시 30분 상인회장 인사, 내빈인사 및 축사, 공연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선숙, 김영우 국회의원과 이강림 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물놀이, 스포츠 댄스, 창작무용, 통기타연주, 풍물놀이



이, 발리 댄스, 보컬그룹 연주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한동업 무용단의 풍물놀이와 발리 댄스, 포천 기타동아리의 연주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운천 상인회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고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미경 주무명예기자단 단장 hsd5333@hanmail.net

# 포천

## 2008년도 사업계획

2008 제5회 포천현대미술제  
- 기간 : 6월 21(토)-6월 27(금)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1층

2008 제3회 자연+사람+미술의 어울림전  
- 기간 : 8월 30(토)-9월 5(금)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1, 2층

산자수명 제5회 포천미술실기대회  
- 일시 : 9월 20(토) 14:00-17:00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미술실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 일시 : 10월 17(금)-10월 19(일)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2층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 일시 : 10월 18(토) 15:00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

제11회 포천미협정기회원전  
- 기간 : 11월 8(토)-11월 14(금)  
- 장소 :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1, 2층

정기총회 및 승년(미술인의 밤) 행사  
- 일시 : 12월 19(금) 17:00-21:00  
- 장소 : 여성회관 청성홀 및 연회실  
\* 17:00-18:00 정기총회 / 18:00-21:00 미술인의 밤

주최 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  
주관 제5회 포천현대미술제 운영위원회  
후원 포천시 포천시의회 경기문화재단 포천예총 진신미술관  
협찬 아도니스호텔 배상연주가 조슬당 몽베르CC 청동시대